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캐나다에 사는 우리 한인 2, 3세들에게 한국의 광복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캐나다에 사는 우리 한인 2, 3세들에게 한국의 광복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광복절을 그냥 달력에 빨간글자로 된 공휴일 정도로 아는 한국 어린이들도 많다. 하물며 여기사는 2,3세들에겐 관심밖이다.

브런치란 좋은 글들을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이런 짧고 재미있는 컬럼이 있다. 어느 어린 쌍둥이 아빠가 쓴 글이다.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임시 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도 아니고, 일왕의 생일 연회장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회사도 아니고, 아우내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17살 유관순 열사도 아니다. 바로 쌍둥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8월 15일 5 살이던 쌍둥이가 ‘광복절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며 나에게 물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무슨 날인지 되물었다. “일본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빼서 갔다가 돌려준 날이래요.”

“뒤통수를 한대 얻어먹는 기분이었다. 단순하고 명쾌한 정의였다. 누가 그러냐고 물



었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알려 주셨다고 했다.

‘태극기를 돌려준다.’ 우리의 독립은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순간 서구열강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0년 중국의 중칭에는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탄생했다. 광복군은 서구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운명의 신은 우리 민족을 편이 아니었을까?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다. 그리고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다. 광복은 그렇게 도둑처럼 찾아왔다. 김구 선생은 갑자기 찾아온 광복을 통탄스러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본의 항복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련관에서 참전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제간의 발언권이 약해 지리

라.”

여덟 살인 쌍둥이에게 다시 광복절이 뭐냐고 물어 봤다. 아이들은 말한다. 일본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빼어 갔다가 돌려 준 날이라고. 참새처럼 짹짹. 아이들에게 제대로 역사 공부를 시켜 주신 어린이 선생님께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애들이 좀 더 크면 알려 줘야겠다. “빼앗긴 태극기를 돌려줬다”가 무슨 뜻인지, “빼앗

긴 태극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국말이 서툰 여기 캐나다 한인 2,3세 들에게 8.15를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광복절이 영어로 뭔지를 알아봐야 한다. 말그대로 해방을 기념 하는 날이기 때문에 National Liberation of Korea라 할 수 있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영어공부하는 셈치고 외워서 가르쳐

도 좋다. “The nation liberation day of Korea is celebrated annually on August 15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commemorates victory over Japan liberated from imperial Japanese rule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그러나 적어도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잊지 말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이라고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Listen & repeat 하면서 외우도록 해도 좋다. 우리나라 신채호 선생도 같은 명언을 남겼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은 캐나다인에도 진리이다. 비록 캐나다에 살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절대 아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쉽게 가르쳐 줘야 된다.

행여 한국에 함께 놀러갈 때도 역사관을 들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독일에서 온 젊은이들도 서울의 전쟁박물관 방문을 좋아한다고 한다. 아우슈비치는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도 진한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1 페이지에 이어) 보고되었다. 왜 그럴까? 문화나 정치 아니면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는걸까?

8월 12일에 보고된 데이터에 따르면 알버타는 주민 10만 명당 거의 24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었다. 이는 퀘벡의 경우 21건, 온타리오의 6건 그리고 이웃 서스캐처원의 1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알버타가 10만명당 70건을 약간 넘는 확진 사례로 정점을 찍은 5월에 비해 여전히 크게 개선되었지만 6월 10만명당 8건의 최저치보다 훨씬 높다.

캘거리 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크레이그 제네는 ‘나이가 주정부 경제제재 완화 뒤 더 많은 확진사례를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버타의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이는 그들이 일터에서 더 많은 사람

과 접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후보도 레스토랑과 술집, 바에 갈 가능성이 큰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2019년 알버타의 중앙 연령이 37.1세로 추정했다. 이는 누나부트 및 노스웨스트 준주 보다 높지만 다른 주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다. 즉 전국 중앙값인 40.8보다 낮으며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 (47.1)와 같이 인구가 가장 오래된 일부 지방보다 훨씬 낮다.

캘거리의 코로나-19는 Fire N Ice Lounge와 관련한 58건, Stephen Avenue에 있는 Cactus Club의 58건, Greta Bar의 19건, The Pint의 12건 등 바와 레스토랑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

제네는 확진 사례가 노인에서 젊은 사람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볼 때 현재의 감염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알버타의 높은 확진자 비율은 온타리오를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도 코로나-19에 대한 1인당 검사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란 설명도 나오고 있다. (https://datawrapper.dwcdn.net/HvLHX/2/)

제네는 알버타가 5월부터 경제를 재개하는 데 있어 다른 후보보다 앞서 있었는데, 이 또한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버타주의 태도도 요인이 된다. 알버타주는 종종 주 안팎에서 자유주의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응집력 있는 정치적 단일체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왜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하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지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12일 알버타에선 1명이 사망하고 1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수는 100명선을 오리내리며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39% 취임 이후 최저치



작년 10월 조국 사태 때와 같은 기록

한국갤럽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9%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 때 39%를 기록한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치인 셈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전주(44%)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7%p가 상승한 53%였다. 평가 보류는 3%, 모름·응답 거절은 5%였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긍정 평가가 40%대에 머물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10월 셋째 주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다시 지지율은 올랐고 지난 4월 총선은 180석이라는 거여를 탄생시켰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폭은 30대(60%→43%), 지역별로는 서울(48%→35%) 등에서 상대적으로 컸다”며 “30대는 전월세 거주·생애 최초 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크고,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6·17, 7·10, 8·4 대책, 임대차 3법·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최근 두 달간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왔지만, 집값과 임대료 상승 우려감은 여전히 크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 적잖은 괴리감 또는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부정적 평가원인으로 부동산 정책(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경

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등이 원인이었다.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 관계, 인사 문제 등도 뒤를 이었다.

정권 교체 여론 45%, 여당 재집권 41% 넘어섰다

부동산 정책은 “잘못하고 있다”가 65%로 압도적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권 교체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은 45%로 ‘현 정권 유지 위해 여당 후보 당선’으로 응답한 비율(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가 65%로 ‘잘하고 있다’(18%)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부동산 관련 58%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고, ‘내릴 것’ 13%, ‘변화 없을 것’ 20% 등의 응답이 나왔다. 또 66%가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고, ‘내릴 것’은 8%, ‘변화 없을 것’ 16%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미래통합당 27%,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6% 순이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계열 정당 지지도가 최소 격차를 보였다.